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김 정 군

장 석 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학교 2곳의 1~3학년 29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비합리적 신념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은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면의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왜곡된 사고가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 내담자를 돕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비합리적 신념

* 본 원고는 김정균(2013)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번지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집단의 일원이 되며, 집단 내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로, 또래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청소년의 사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성인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돕는다(구자경, 황진숙, 2007; 천정웅, 남부현, 김삼화 2012).

이처럼 청소년기 또래관계가 주요 발달과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따돌림’으로 고통받으며 학교부적응 및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왕따’로 불리는 따돌림이 우리 사회와 학교의 당면 문제로 부각된 이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짓고 다루고 있다. 따돌림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는 따돌림의 결과로 우울, 불안, 분노, 등교거부, 피해망상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 따돌림 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는 자살이며(박경원, 2013; Parker & Asher, 1993), 자살의 가장 큰 심리적 원인으로 연구자들은 우울과 소외감을 들고 있다(김인규, 조남정, 2006; 조운숙, 이경님, 2010; Baumeister, 1990).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유발하게 되는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언어적 위해 및 협박, 조롱을 가하는 직접유형과 속칭 ‘은따’(이상균, 1999)로 불리며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따돌리는 간접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간접유형인 ‘은따’는 말 걸지 않기,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

고 쳐다보지 않기, 쉬는 시간에 같이 놀지 않기 등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은따’를 경험한 비율은 52.9% (김용태, 박한샘, 1997), 41.0%(채관석, 200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따돌림을 가장 견디기 힘든 경험으로 보고하였다(박경숙, 손희정, 송혜경, 1998).

Crick & Grotpeter(1995)는 이와 같은 은밀한 따돌림을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또래집단에서 집단의 일원을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외시킴으로써 우정관계 또는 소속감에 의도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따돌림에 대한 개입 및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왔으며, 비교적 최근 들어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박경숙, 손희정, 송혜경, 1998)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은 간접적 가해(소외, 모함)에서 시작되어 직접적 가해(모욕, 폭행, 갈취)로 점차 발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에 의한 따돌림이 결국 보다 심각한 형태의 학교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진입 이후로도 지속적인 대인관계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최재승, 2007; 강인설, 정계숙, 2008; 민정선, 2012; 박연옥, 2012; 지수연, 2012). 인간의 기본욕구인 소속감을 해치는 관계적 공격성이 폭넓고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

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공격성에 그 뿌리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reud(1933)는 인간에게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파괴본능인 타나토스라는 두 개의 본능이 있으며 공격성은 이 파괴본능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고, Lorenz(1967)는 공격성에 대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동료를 쫓아냄으로써 종의 분포를 고르게 하여 궁극적으로 종의 생존율을 높이는 본능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Horney(1939)는 공격성에 대해 본래 자신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건설적 측면에서의 자기주장으로 변환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공격성은 타고난 본성이며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측면을 갖는 동시에, 삶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적응적 측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서, 인지, 자아존중감, 자기표상, 자기애 등(서수균, 권석만; 2002;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6; 심주한, 2008; 이홍, 김은정, 2012)의 개인내적 변인, 부모양육태도(김지현, 2009)와 같은 환경적 변인, 타인표상, 인기도 등의 대인관계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의 연구 동향은 자기애로 인한 공격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향자, 김영란, 김희정, 2007; 이세연, 유미숙, 2010; Rhodewalt & Morf, 1998). Kohut(1971)에 의하면 자기애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건강한 자기애는 자존감과 자기 확신이 높고 타인에 대해서 성숙한 형태로 인정과 찬사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유아에게 공감적이지 못할 때, 유아는 지속적 거부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온전한 자기애에 대한 확신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자기애적 상처를 갖게 된다. 결국, 스스로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인의 찬사와 인정을 통해 이

를 확인하고 보상 받고자 하나, 이런 욕구가 좌절될 때 자기애적 상처가 자극되어 격노하고 공격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Kohut 1979).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분류된다(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과장된 자존감, 과도한 찬사 요구, 거만한 행동,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웅대한 자기상과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갖는 공통점은 있으나 취약한 자기개념과 타인 반응에 대한 과민성으로 내향적이고 소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Akhtar & Thompson, 1982).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분노억제 수준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수동공격, 투사 등의 부정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준득, 2005; 최혜정, 장문선, 2010; 황성훈, 2010). 이처럼 일관되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서수균, 2007; 백승혜, 현명호, 2008; 강진옥, 2009; 김주영, 2012; Cann & Biaggio, 1989), 내현적 자기애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경우 내면의 웅대한 자기상이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아 부정적 행동의 하나로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이 두 변인에 작용하는 개입 가능한 매개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진로탐색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혼란에 더해, 가장 중요한 또래관계에서 소외됨으로써 가중되는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보다 적응

적 삶을 살도록 돕는데 유용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해 인지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자주 언급되어왔는데(서수균, 2004; 최인숙, 이강이, 2010), 그 중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역기능적 사고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나 기대를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Ellis, 1962, 1976b, 1984a; 박경애 2004, 재인용). 즉,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현실에서는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기대와 요구를 함으로써 좌절의 빈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불편감은 커지게 되며(Ellis & MacLaren, 2005), 갈등장면에서 남탓하기, 파국화 등의 부적응적 인지전략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공격성을 높지게 되는 동시에, 자기비하적 사고로 인하여 분노를 억제하여 우울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서수균, 2004, 2009, 2011). 최근의 관계적 공격성과 비합리적 신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 요인들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영경, 김은정, 2011; 이홍, 김은정, 2012).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자기비판, 타인비난, 파국화 등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주로 사용하며(김진희, 2011), 끊임없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완벽주의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이명신, 2010; 이진숙, 현명호, 2012),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적 공격성,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서수균, 2004; 이홍, 김은정, 2012)를 통해서는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그 상호관계를 일관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내현적 자기애, 비합리적 신념,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를 하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격특성인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비합리적 신념 또한 관계적 공격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면에 과장된 자기상을 형성하고 있으나 실은 취약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소심한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이 수동공격의 형태인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현적 자기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와 해석을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주로 부모자녀관계, 개인의 정서조절, 인지적 차원의 귀인성향 등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성격특성과 인지특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해 밝히고 있는 매개모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Crick & Grotpeter(1995)의 초기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격성 개념으로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있으며, 선행연구들 역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따돌림을 포함한 관계적 공격성이 여학생에만 한정된 공격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별 구분 없이 연령의 증가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심희옥, 2007), 청소년의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고 확장하여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사이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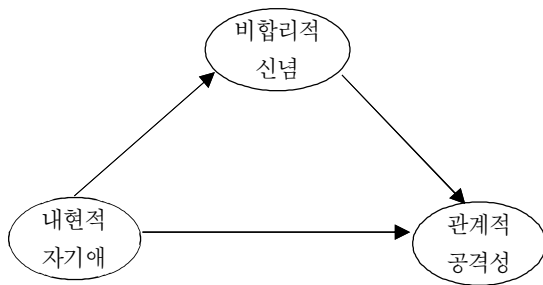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 감소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적 공격성에 소모되는 힘을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자신들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성장과 발달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개 중학교에서 각 학년별 2개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93)

구 분	남학생 (%)	여학생 (%)	계 (%)
중 1	46 (15.7)	57 (19.5)	103 (35.2)
중 2	31 (10.6)	40 (13.6)	71 (24.2)
중 3	58 (19.8)	61 (20.8)	119 (40.6)
계	135 (46.1)	158 (53.9)	293 (100)

학급씩 설문지 총 430부를 배부하여 372부를 수거하였고 그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293부의 설문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손실이 다소 많았던 이유는 무응답, 고정반응 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는 연구 윤리상 원치 않는 연구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시 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자율적인 연구 참여를 안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된 것은 최근 연구에서 학교폭력 발생비율과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 비율이 중학생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통계청, 2011; 박효정, 이희현, 2013). 이는 학교폭력과 친구갈등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학교시기에 가장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

Akhtar &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로 하여 강선희, 정남운(2002)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된 자기상 및 내적 취약성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

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성(‘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진다’), 인정 및 거대자기 환상(‘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 바란다’), 착취 및 자기중심성(‘기회만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과민/취약성(‘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소심 및 자신감 부족(‘나는 종종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자료분석시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청소년들이 중앙값에 응답하는 경향성을 피하기 위해, Likert 5점에서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재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인 중학생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이해가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목표불안정성 .82, 인정 및 거대자기 환상 .82, 착취 및 자기중심성 .80, 과민취약성 .81, 소심 및 자신감 부족 .7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onis & Frick(2004)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를 한영경(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관계적 공격성 측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래갈등 척도는 크게 외현적 공격성(20문항)과 관계적 공격성(20문항)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적 공격성은 외부로 표출되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의미하며, 관계적 공격성은 은밀하게 타인을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한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Marsee & Frick(2007)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

DiGiuseppe, Leaf, Exner, & Robin(1988)이 개발한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GABS)를 서수균(2004)이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 총 38문항, 6개의 하위요인(비합리적 신념 5가지 및 합리적 신념 1가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는 5개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은 성취에 대한 집착(내가 중요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참담한 일이 될 것이다), 자기비하(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이는 내가 호감이 가지 않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불편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무 괴롭다), 무시나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나는 사람들로부터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만 하며, 나는 부당한 행위를 받아들이 수 없다),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취에 대한 집착 .83, 자기비하 .81,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83, 무시나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 .75, 호감 및 인

정에 대한 집착 .82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값을 산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를 따랐으며, 단계별로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를 위한 기본요건인 자료의 정규분포성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흩어진 정도인 표준편차, 측정한 값의 정규분포를 가정해주는 왜도, 첨도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표 2). Curran, West & Finch(1996)는 왜도와 첨도의 기준으로 왜도는 2, 첨도는 7을 초과하지 않을 때 정상분포를 가정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왜도와 첨도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가 가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r=.470, p<.01$)과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으며, 비합리적 신념($r=.687, p<.01$)과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적 공격성의 상

관($r=.437, p<.01$)도 보통 수준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착취 및 자기중심성($r=.590, p<.01$)이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인 자기비하($r=.409, p<.01$)와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r=.430, p<.01$)이 유의한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가장 밀접한 상관을 보인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은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r=.646$)과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r=.602, p<.01$)으로 나타났으며, 비합리적 신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과민/취약성($r=.621, p<.01$)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 간 상관은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과 비합리적 신념의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r=.654$)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이 높아질수록 비합리적 신념의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요인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자신은 무가치하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여 대인관계에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는 과민/취약성 특성이 올라갈수록 좌절감은 높아지고 불편함에 대해 인내하는 능력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적용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독립변

표 2. 기술통계 및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N = 293)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소심/거신질 부족	1												
2. 인정/거대자기환상	.201**	1											
3. 파인/파악성	.555**	.531**	1										
4. 학위/자기중심성	.337**	.418**	.529**	1									
5. 목표불만족	.434**	.215**	.465**	.389**	1								
6. 내향적자기애	.677**	.684**	.859**	.735**	.701**	1							
7. 자기비하	.359**	.350**	.548**	.453**	.354**	.571**	1						
8. 성취집착	.293**	.478**	.476**	.403**	.307**	.541**	.568**	1					
9. 무시/무당대우 파인성	.176**	.492**	.355**	.340**	.174**	.424**	.360**	.555**	1				
10. 불평/적절 낮은 인내	.451**	.379**	.654**	.434**	.414**	.646**	.603**	.647**	.462**	1			
11. 호감인정 집착	.282**	.553**	.476**	.530**	.343**	.602**	.594**	.642**	.570**	.636**	1		
12. 비합리적 신념	.387**	.554**	.621**	.529**	.392**	.687**	.765**	.866**	.731**	.832**	.846**	1	
13. 관계적 공격성	.185**	.246**	.356**	.590**	.324**	.470**	.409**	.330**	.265**	.353**	.430**	.437**	1
평균	19.31	23.84	23.64	19.12	21.33	107.24	12.40	16.10	17.68	13.38	10.60	70.15	33.31
표준편차	4.01	4.60	5.33	4.48	4.98	17.08	3.48	4.16	3.68	3.76	3.02	14.64	9.66
최도	.055	-.317	.062	.103	-.228	-.149	.180	.319	.103	.141	.376	.094	.775
최도	-.203	.416	-.064	-.369	-.213	.235	.019	.197	.017	-.158	.165	-.034	.285

* $p < .05$, ** $p < .01$

표 3.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N = 293)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470	9.08***	.218	82.52***
2	내현적 자기애 → 비합리적 신념		.687	16.11***	.470	259.47***
3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321	4.58***	.241	47.24***
	비합리적 신념 → 관계적 공격성		.217	3.09**		

* $p < .05$, ** $p < .01$, *** $p < .001$

인의 유의한 영향력 검증을 위해 각각 독립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계수와 수정된 R²가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회귀식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마지막 회귀식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비합리적 신념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한 영향($\beta=.470$, $p<.001$)을 미치고, 비합리적 신념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beta=.687$, $p<.001$)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3단계의 내현적 자기애와 비합리적 신념은 각각($\beta=.321$, $\beta=.217$ / $p<.001$)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Delta\beta=.149$)하여 비합리적 신념은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test 결과($Z=7.30$) Z값이 -1.96 이

하, +1.96 이상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보다 세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과정은 1단계로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로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비합리적 신념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독립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총 5번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표준화계수와 수정된 R²가 사용되었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성취에 대한 집착의 매개효과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중 성취에 대한 집착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표 4. 성취에 대한 집착의 매개효과

(N = 293)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	내현적 자기에	→ 관계적 공격성	.470	9.08***	.218	82.52***
2	내현적 자기에	→ 성취집착	.541	10.97***	.290	120.38***
3	내현적 자기에	→ 관계적 공격성	.412	6.72***	.224	43.08***
	성취집착	→ 관계적 공격성	.107	1.75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내현적 자기에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beta=.470$, $p < .001$)을 미치며, 관계적 공격성에 21.8%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취에 대한 집착에 유의한 영향($\beta=.541$, $p < .001$)을 주며, 성취에 대한 집착을 29.0% 설명한다.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관계적 공격성($\beta=.412$, $p < .001$)에 대한 영향력은 1단계보다 그 값이($\Delta\beta=.058$) 줄었으나 성취에 대한 집착의 관계적 공격성($\beta=.107$)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함이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의 성취에 대한 집착 요인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비하의 매개효과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중 자기비하의 유

의미한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내현적 자기에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beta=.470$, $p < .001$)을 미치며, 관계적 공격성에 21.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어서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자기비하에 유의한 영향($\beta=.571$, $p < .001$)을 주며, 자기비하를 3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관계적 공격성($\beta=.351$, $p < .001$)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였고, 1단계보다 그 값이($\Delta\beta=.119$) 감소하였으며, 자기비하가 관계적 공격성($\beta=.209$,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기비하의 부분매개를 인정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test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자기비하($Z=6.37$, $p < .001$)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기비하의 매개효과

(N = 293)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	내현적 자기에	→ 관계적 공격성	.470	9.08***	.218	82.52***
2	내현적 자기에	→ 자기비하	.571	11.87***	.324	140.90***
3	내현적 자기에	→ 관계적 공격성	.351	5.66***	.245	48.40***
	자기비하	→ 관계적 공격성	.209	3.37**		

* $p < .05$, ** $p < .01$, *** $p < .001$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매개효과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중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beta=.470, p<.001$)을 미치며, 관계적 공격성에 21.8%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에 유의한 영향($\beta=.646, p<.001$)을 미치고 있으며,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에 대해 41.6%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적 공격성($\beta=.415, p<.001$)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였고, 그 값이 1단계보다 감소($\Delta\beta=.055$)하였지만,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관계적 공격성($\beta=.085$)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

서 비합리적 신념의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인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는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beta=.470, p<.001$)을 주고, 또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21.8%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로 내현적 자기애는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에 유의한 영향($\beta=.424, p<.001$)을 미치고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에 대해 17.7%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3단계에서 내현적 자기

표 6.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매개효과

(N = 293)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470	9.08***	.218	82.52***
2	내현적 자기애	→ 불편/좌절의 낮은 인내	.646	14.45***	.416	208.80***
3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415	6.13***	.220	42.12***
	불편/좌절의 낮은 인내	→ 관계적 공격성	.085	1.250		

* $p<.05$, ** $p<.01$, *** $p<.001$

표 7.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의 매개효과

(N = 293)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470	9.08***	.218	82.52***
2	내현적 자기애	→ 무시/부당대우 과민성	.424	7.99***	.177	63.86***
3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436	7.65***	.221	42.38***
	무시/부당대우 과민성	→ 관계적 공격성	.080	1.40		

* $p<.05$, ** $p<.01$, *** $p<.001$

애의 관계적 공격성($\beta=.436, p<.001$)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였고 1단계보다 그 값이($\Delta\beta=.024$) 감소하였지만,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의 관계적 공격성($\beta=.080$)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의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의 매개효과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중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입증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beta=.470, p<.001$)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계적 공격성에 21.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에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602, p<.001$)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에 36.1%의 설명력을 보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식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beta=.331, p<.001$)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1단계보다 그 값이($\Delta\beta=.139$) 감소하였으며,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요인의 관계적 공격성($\beta=.231, p<.001$)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여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유의성을 Sobel-test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Z=4.76, p<.001$)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사이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는 자기비하,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요인만이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고, 나머지 무시 및 부당대우 과민성,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성취에 대한 집착 요인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또래관계를 단절시키고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는 비합리적 신념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표 8.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의 매개효과

(N = 293)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470	9.08***	.218	82.52***
2	내현적 자기애 → 호감/인정에 집착		.602	12.87***	.361	165.64
3	내현적 자기애 → 관계적 공격성		.331	5.22***	.250	49.58***
	호감/인정에 집착 → 관계적 공격성		.231	3.63***		

* $p<.05$, ** $p<.01$, *** $p<.001$

나타났으며, 비합리적 신념은 내현적 자기애 각 하위요인들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과민취약성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다는 연구결과(신현민, 2009; 안지현, 2013)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소심한 탓에 갈등상황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왜곡된 사고를 통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역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 모두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 중 착취 및 자기중심성 요인이 관계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인 측면을 보이는데 이는 관계적 공격성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고향자, 김영란, 김희정, 2007; 서수균, 2011; 최혜정, 장문선, 2010). 마지막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두 변인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중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이 관계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반드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도 상승함을 의미한다(서수균, 2009; 한영경, 김은정, 2011).

둘째,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 분노경험, 분노표출이 높고(서수균, 2007), 조망확대, 긍정적 초점변경, 계획 다시 생각하기 등과 같은 적응적 인지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안지현, 2013)를 지지하며, 과묵화, 타인비난,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강문선, 이영순, 2011; 김진희, 2011; 서수균, 2011)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자들(강선희, 정남운, 2002; 권석만, 한수정, 2007; 김진순, 2008; Kohut, 1971; Martinez, Zeichner, Reidy, & Miller, 2008)이 주장하듯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과장된 자기인식, 자기중심성,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여 자존감이 쉽게 위협받는 취약한 자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 자아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해 당위적 요구를 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통해 공격성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반드시 잘 수행해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반드시 공정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Ellis & Maclaren, 2005)들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다 강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들에게는 문제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만 하길 다행이다’라고 심각성을 낮추어 생각하는 조망확대, 부정적인 상황이나 일에 대해 집착하기보다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여 기분을 전환하는 긍정적인 초점 변경,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하는 계획 다시 세우기와 같이 적응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 하위요인의 매개효

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비하,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의 두 개의 요인만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회평가 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바램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한영경, 김은정, 2008)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비난을 통해 수치심을 경험하며, 수치심과 분노를 매개로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권희영, 홍혜영, 2010; 안지현, 2013)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게는 타인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나,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나 욕구가 좌절될 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족하고,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며 무기력하다는 자기비하적 의식에서 오는 고통스런 감정(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오하연, 박경, 2012 재인용)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과대적 자기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좌절될 때 자신을 가치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자기인식을 통해 수치심을 경험함으로써 격노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흥과 김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무시 및 부당대우에 대한 민감성,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성취에 대한 집착 역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자기비하,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의 두 개의 요인만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시 및 부당대우 과민성의 경우 공정함에 대한 요구이며,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인내는 긴장과 불안에 대한 인내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성취에 대한

집착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을 나타낸다. 자기애성 병리는 생의 초기에 자기의 과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공감적 대상의 상실로 자기에 적 상처를 갖게 되고, 자신을 결함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보복함으로써 자기에 적 상처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는다(Kohut, 1971; 권희영, 홍혜영, 2010; 안지현, 2013). 이와 관련지어 볼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은 자기 결함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로 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무시 및 부당대우 과민성은 공정함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성취에 대한 집착은 타인과 관련된 요인이기 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감으로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집착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두드러진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결과에서 위의 세 가지 요인은 매개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의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은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이 비합리적 신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인 불편감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과민하고 취약할수록 불편감 및 좌절의 경험이 높아져 일상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민하영, 2013).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비하, 호감 및 인정에 대한 집착 두 개 요인만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

소년들은 내면에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좌절될 때 내적으로 쉽게 자존감이 흔들리는 취약한 자기구조로 인해 자기비하적인 사고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또래와의 갈등적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적응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타인과 자신에 대해 절대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격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일부 중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로 인해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관계적 공격성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완한 측정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하위요인에 작용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또래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의 단초가 되며 또래관계의 유대를 파괴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법을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청소년들에게 적응상의 심각한 고통을 주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 그 동안은 외현적 공격성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따돌림 연구에 머물러 있었고, 여학생에게 보이는 한정된 행동특성으로 인식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 개입이 어려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는 높은 기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절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입방법의 하나임을 밝혀 청소년 내담자를 돕는 유용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인설, 정계숙 (2008). 만 3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1-50.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강진옥 (2009). 청소년의 내.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고향자, 김영란, 김희정 (2007). 소년수형자와 일반 청소년의 자기애,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8(3), 917-933.
- 구자경, 황진숙 (2007). 청소년의 가정, 학교 및 대중매체환경과 자아정체성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8(4), 1623-1636.
- 권석만, 한수정 (2007).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23-1048.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55-84.
- 김인규, 조남정 (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검증. 상담학연구, 7(4), 1189-1202.
- 김주영 (2012).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반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지현 (2009).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한국아동학회지, 30(6), 489-504.
- 김진순 (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부적정서, 자존감, 능력 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김진희 (2011).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6).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대한가정학회지, 44(2), 1-11.
- 민정선 (2012). 무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사이의 관계적 공격성이 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사자의 정서적 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민하영 (201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 아동학회지, 34(4), 53-64.
- 박경숙, 손희정,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원 (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및 사회적지지.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경애 (2004). 인지·정서·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 박연옥 (2012). 항공사 승무원이 지적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효정, 이희현 (2013).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2009).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695-708.
-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정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 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01-919.
- 신현민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심주한 (2008).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심희옥 (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16(6), 1107-1118.
- 안지현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하연, 박 경 (2012). 사회불안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에 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77-99.
- 이명신 (2010). 자기불일치,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상균 (1999). 중학생의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37, 357-379.
- 이세연,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8-128.
- 이준득 (2005). 내현적 ·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이 흥,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조윤숙, 이경님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8), 27-37.
- 지수연 (2012).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지각하는 직장 내 따돌림의 선행요인과 결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 채관석 (2003). 중학생들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지도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천정웅, 남부현, 김삼화 (2012). 청소년 멘토링. 경기: 양서원.
- 최인숙, 이강이 (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 최재승 (2007). 조직내 따돌림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최혜정, 장문선 (2010).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539-554.
- 통계청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85-1002.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 531.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Cann, H.,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 64, 55-58.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iGiuseppe, R., Leaf, R., Exner, T., & Robin, M. W.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ational/irr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 Therapy,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 Ellis, A., & MacLaren, C. (2007).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 (서수균, 김윤희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2005에 출판).
- Freud, S. (2006).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김진숙 역). 서울: 문예출판사(원저는 1933에 출판).
- Horney, K. (1991). 정신분석의 새로운 이해 [New ways in psychoanalysis]. (송용대, 김현옥 공역).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원저는 1939에 출판).
- Kohut, H. (1999). 자기의 분석 [Analysis of the self].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는 1971에 출판).
- Kohut, H. (2006). 자기의 회복 [Restoration of the self].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저는 1979에 출판).
- Lorenz, K. (1986). 공격성에 관하여 [On aggression]. (송준만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저는 1967에 출판).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s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 Martinez, M. A., Zeichner, A., Reidy, D. E., & Miller, J. D. (2008).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Effect of positive, negative and delayed feedba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40-14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

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원고 접수일 : 2013. 12.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4. 04. 21.
게재 결정일 : 2014. 04. 22.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Jung-Gyuen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between the covert narcissism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For this purpose, Peer Conflict Scale(PCS), Covert Narcissism Scale(CNS), Revised-Generalized Attitude & Belief Scale(R-GABS) were collected from randomly chosen 293 subjects ranging from the first to third year students at 2 middle schools located in Gyeonggi.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r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relational aggression, and irrational beliefs were significan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irrational beliefs.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among the various psychological elements that create relational aggression, the unique character structure of covert narcissism brings about absolute and fixed irrational thinking, which lead the higher relational aggression. This result was t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youth in relational aggressio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rrational Beliefs, Covert Narcissism, Relational Aggression